

전남 장애인체육인, 영광서 '스포츠 대축제'



지난해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완도에서 제31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 모습.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29일부터 사흘간 열전

22개 시·군 3천여명 참가...21개 종목서 기량 겨뤄 뉴스포츠·스포츠재활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전남 장애인체육인들의 우정과 화합의 대축제인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천년의 빛' 영광군에서 14년만에 다시 열린다.

'위대한 영광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이라는 주제로 22개 시·군 3천여명의 장애인체육인들이 참가해 골볼, 론볼, 보치아, 좌식배구 등 21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장애인의 체육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도민이 하나 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대회를 통해 전남장애인체육의 실력 향상과 더불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장애인 체육을 빛내는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회를 포함해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3회나 개최한 영광

군은 장애인체전 최대 개최지로 전남 장애인체육 기반조성과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최고 성공대회를 위해 민관이 하나돼 영광스포티움에 비롯한 다양한 경기장 시설 등을 정비하고, 숙박시설, 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참가선수와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회식은 29일 오후 3시 영광국민체육센터에서 시·군 선수단 입장, 영광군수 환영사, 대회기 게양, 대회사, 축사, 선수 심판대표 선서, 성화점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대회기간 동안 영광스포티움 국

민체육센터 앞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뉴스포츠(보치아, 한궁) 체험부스, 스포츠재활체험관, 휠체어보장구수리센터, 정보통신보조기 등 30여개의 다양한 부스운영과 참가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해 김수찬, 강해연 등 유명가수를 초청한 축하무대도 마련된다.

한편, 대회 폐회식은 5월1일 오후 1시30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며, 종합 시상(1-8위까지 입장 시·군)을 비롯해 최우수선수상, 모범선수단상, 성취상, 장려상 등을 수여하고 차기 대회 개최지인 장성군에 대회가 전달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지난 24일 열린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통산 100세이브를 달성한 KIA 마무리투수 정해영이 이번 호 감독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수호신 정해영 최연소 '100S' 달성

24년 만에 신기록

KIA 타이거즈 '수호신' 투수 정해영이 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6-2로 앞선 9회말 구원 등판한 정해영은 마지막 타자를 땅볼로 처리해 아웃카운트 3개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세이브를 추가했다.

이로써 정해영은 22세 8개월 1일만에 KBO 역대 22번째 100세이브를 달성하며 이전 기록인 임창용의 23세 10개월 10일의 기록을 24년 만에 앞당겼다.

아울러 4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기록도 달성했다.

2020년 1차 지명의로 KIA에 입단한 정해영은 그 해 8월30일 광주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구원 등판해 첫 세이브를 거두었다.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2022년 9월24일 최연소 2년 연속 30세이브(21세 1개월 1일, 타이거즈 최초), 2023년 10월8일 3년 연속 20세이브(타이거즈 최초)를 기록하며 KIA 타이거즈의 수호신으로 활약 중이다.

정해영은 올 시즌 12경기에 등판해 10세이브(1승1패)를 수확, 2위 삼성의 오승환(7개)에게 3개 차이로 앞서며 이 부문 단독 1위에 올라있다.

/주홍철 기자

※역대 100세이브 관련 기록

구분	선수명(팀)	일자	상대팀	구장	기록
최연소	정해영(KIA)	2024.04.24	키움	고척	22세 8개월 1일
최소경기	오승환(삼성)	2007.09.18	KIA	무등경기장	180경기
최고령	임창민(키움)	2023.06.04	SSG	SSG 랜더스필드	37세 8개월 10일

더 이상 추락은 없다 반전의 신호탄 쏘라

광주FC, 내일 수원FC와 홈 맞대결... "연패 끊는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9R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광주가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한 경기로 꼽힌다.

최근 수원FC와 10경기 상대 전적에서 9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광주FC.

7라운드 전복현대 원정 패배 후 일주일의 휴식기를 가진 광주는 지난 20일 한남대와의 연습 경기를 펼치며 수원FC와의 경기를 대비했다.

이날 경기에서 이근희와 오후성은 각각 멀티 골을 기록했고, 여봉훈의 도움 받은 아사시가 득점을 신고했다.

또한, 전복현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친 박한빈과 정지용이 패조의 컨디션으로 출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전 GK 김경민이 복귀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최근, 출전 명단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올린 베테랑 이요름과 김경재는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팀의 중심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스쿼드가 두꺼워진 만큼 기록 없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전후반 추가시간에 잇따라 실점하며 패배하는 패턴을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다.

최근 2연승으로 리그 5위로 올라선 수원FC는 공격수 이승우를 중심으로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제주전 후반 교체 출전하여 1골 1도움으로 역전승을 이끈 이승우는 광주가 반드시 막아야 할 선수다.

김은중 감독 부임 후 평균 출전 시간은 약 62분에 불과하지만, 현란한 개인기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경기 결과를 바꿀 능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27일 홈에서 열리는 수원FC와의 경기에 복귀하는 광주 주전 골키퍼 김경민. <광주FC 제공>

또한, 패스마스터 윤빛가람,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이용과 공격수 지동원 등 스타플레이어들이 즐비한 수원 FC를 상대로 광주는 잠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수원FC전을 시작으로 5월에만 7경기를 치러야 하는 광주. 5연패를 끊고 대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K리그 팬들은 광주가 다시 한번 반전 드라마를 써낼지 기대하고 있다.

/박희중기자

'2주 휴식' 손흥민 EPL 10-10 재도전

28일 '북런던 데비' 아스널전 출격

EPL 토트넘과 '캡틴' 손흥민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데비'에서 방등을 노린다.

토트넘은 28일 오후 10시 아스널과 2023-2024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맞붙는다.

토트넘은 13일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 이후 20일 예정됐던 34라운드가 상대 맨시티의 FA컵 일정으로 연기되면서 보름 만에 경기를 치른다.

직전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은 0-4로 완패하며 EPL 5위로 밀려났다. 토트넘이 경기를 치르지 않는 사이 4위 애스턴 빌라가 연승을 거두며 승점 66이 돼 2경기 뒤 치른 토트넘과 승점 6차로 벌어졌다.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첼시, 리버풀 등 부담스러운 상대를 연이어 만나는 토트넘으로선 4위 추격에 다시 시동을 걸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손흥민 개인에게도 중요한 경기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달 말 루턴타운과의 30라운드 이후 3경기째 득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가 아스널을 상대로는 통산 리그 17경기, 리그컵 2경기에서 7골 2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한 터라 이번 경기에서도 해결사로 돌아올 거란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9월 아스널과의 9라운드 원정에서도 손흥민은 1-1 동점을 만드는 골과 2-2로 다시 균형을 맞추는 골을 모두 책임지며 2-2 무승부를 이끌어 강한 면모를 확인한 바 있다.

손흥민의 '리그 10골-10도움' 도전도 이어진다. 손흥민은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2019-2020 시즌(11골 10도움), 2020-2021 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EPL에서 개인 통산 3번째 10골-10도움을 채우게 된다.

/연합뉴스

'PGA 잔류' 우즈, 1억弗 보너스

영국 일간 '매길로이는 689억원 수령' 보도

LIV 골프로 이적하지 않은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영리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지분을 받는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는 우즈에게 1억 달러(약 1천378억원), 매길로이에게 5천만 달러(약 689억원)를 지분으로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PGA투어 엔터프라이즈는 투자 컨소시엄 SSG로부터 30억 달러(약 4조 원)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PGA 투어의 영리법인이다.

우즈와 매길로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PIF가 후원하는 LIV로 이적하지 않고 PGA 투어에 남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거액의 지분을 받게 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PGA투어 엔터프라이즈는 PGA 투



타이거 우즈(오른쪽)와 로리 매길로이 /AFP=연합뉴스 자료 사진